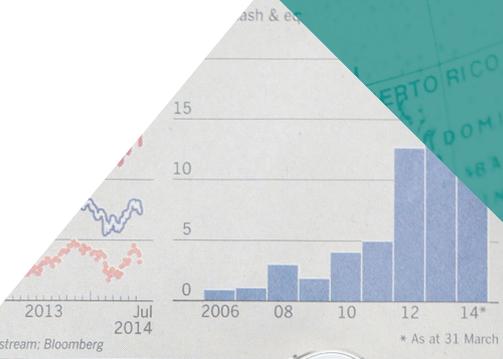


Oct
2019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ion is not the biggest
...JP Morgan estim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Oct
2019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리

9월 동향 초반 홍콩 사태 완화, 브렉시트 연기 소식 등에 상승하였으나 중반 이후, 지정학적 이슈와 미·중 협상 불확실성, 미국의 대중국 투자 차단 이슈 등으로 하락 마감

초반, 홍콩 송환법 관련 시위 완화, 노딜브렉시트 연기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완화

중반, 사우디 원유시설 피폭 관련, 미-이란간 지정학적 충돌 우려 및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 이슈 등이 상승 동인으로 작용

미·중 협상이 10월 고위급 회담 예정에도 불확실성이 겹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탄핵 이슈와 미국의 중국 투자 차단 소식 등으로 하락

■ 월초, 낮은 금리 레벨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속 상승 출발. 이어 홍콩 사태 진정과 미·중 협상 기대, 노딜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세 지속

- 9월 초, 낮은 금리 수준에 대한 경계감 속 투자심리 위축으로 상승 출발
- 이어 글로벌 경기불안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으로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 홍콩 시위 사태 완화, 브렉시트 연기 및 미·중 고위급 협상 소식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라는 다소 모호한 정책 영향으로 재차 상승 전환

- 9월 중반, 미국채 금리 상승 반영 속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사우디 원유시설 피폭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일부 되돌림
- 그러나 9월 FOMC에서 금리인하 결정에도 여전히 보험성 인하를 강조하며 향후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함에 따른 시장의 매파적 인식 등으로 재차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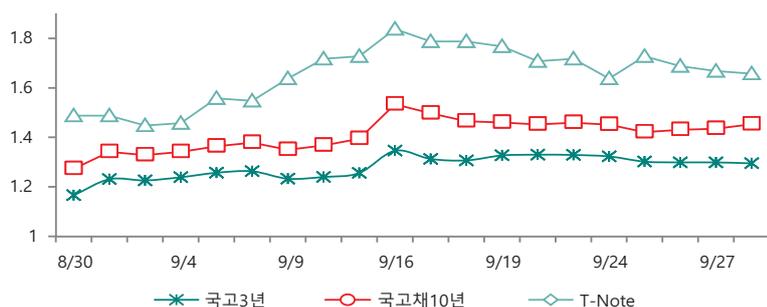
■ 9월 후반, 미·중 협상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트럼프의 긍정적 언급에 우려 완화. 반면,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리 하락 마감

- 9월 후반, 중국 무역협상단의 미국 농가 방문 취소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관련 긍정적 발언으로 우려가 크게 완화되는 양상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이슈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중국 투자 차단 소식이 위험회피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마감

9월 평균

국고채(3년): 1.29%
 국고채(10년): 1.42%
 T-Note(10년): 1.67%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10월 전망 국내외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협상 불확실성 속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하락 예상

평균	2019. 1Q	2019. 2Q	2019. 3Q ^F	2019. 4Q ^F
국고채(3년, %)	1.80	1.64	1.28	1.20

- 국내 수출 증가율 10개월 연속 감소세,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기록 등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국내 수출증가율 10개월 연속 감소세 속에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기록, 전월대비 광공업생산 1.4% 하락 등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이에 10월 금통위는 전월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른 추가인하 여력 가능성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국내경제 하방리스크 지속 하는 가운데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점증

-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 시사 등에 비춰보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
 - 10/10~11일간 2개월 반 만에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시장은 스몰딜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며 위험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 시사 언급 등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강경 스탠스가 상존하는 점이 협상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기대 확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제한 정책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

-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매파적 스탠스에도, 미·중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비둘기적 성향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외 통화정책 측면이 소폭 국고채 금리 하락 기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중 고위급 협상은 시장 기대 이하의 스몰딜 결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경우 연준은 매파적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스탠스 전환이 예상
 - 여기에 국내 통화완화 기조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고채 금리는 완만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됨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1.15%~1.30%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파적 금리인하를 단행한 연준 스탠스 ·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기대

달러/원 환율

9월 동향 대외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 1,180원대까지 하락 후, 사우디 관련 리스크 확대와 매파적 FOMC 결과 속 혼란스런 트럼프의 협상 시그널 등으로 상승 추세 전환

월 초, 대외 안보 및 정치리스크 완화 속에 미중 협상의 낙관적 기대감, 위안화 강세 등이 원화 강세 견인

중반, FOMC 금리인하에도 매파적 성향 인식과 사우디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달러 강세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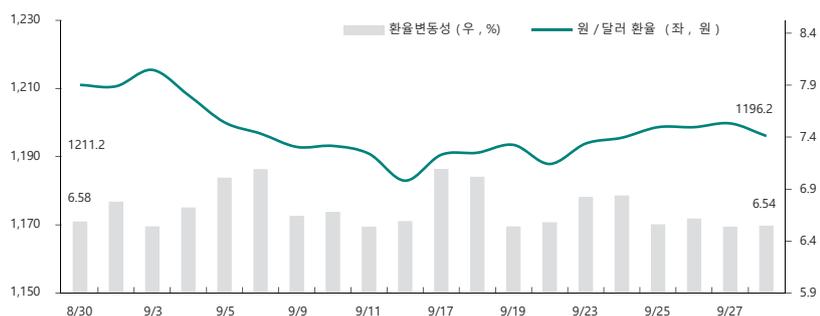
월 후반, 미중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혼돈스런 시그널이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상대적 국내 경제 지표 부진이 환율 상승 견인

- 월 초, 홍콩 시위사태 완화, 브렉시트 연기 속 미·중 10월 고위급 회담 등이 위험선호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하락
 - 9월 초, 달러/원 환율은 홍콩 송환법 철폐에 따른 시위사태 완화, 브렉시트 연기 및 미·중간 고위급 회담 10월 성사 가능성 등으로 위험선호가 강화되며 하락 출발
 - 이어,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위안화 강세가 하락 추세를 강화시킨 가운데 ECB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관망세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하단 제한
- 중반 들어, 미·중 갈등 완화 기대, FOMC에서의 금리인하 등이 하락을 부추겼으나, 연준 정책에 대한 매파적 인식, 사우디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 전환
 - 9월 중반, 미·중간 협상 예정에 따른 갈등 완화 조짐, FOMC에서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하락 추세 강화되며 1,180원대 초반까지 하락
 - 그러나 FOMC 결과 이후 기자회견 내용이 매파적이라는 인식과 사우디 원유시설 피폭에 따른 미-이란간 갈등 확대 등이 하단을 제한하는 양상
- 9월 후반, 트럼프 발언에 따른 미·중 협상의 혼란스런 시그널이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미 경제의 견조함 대비 국내 경제지표 부진으로 원화 약세 심화
 - 9월 후반, 미·중 협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된 협상관련 시그널 등이 지속적인 협상 불확실성을 확대
 - 여기에 미국 지표는 견조한 반면, 국내 지표의 부진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하였으나 월말 달러 매도 강화 등으로 환율은 전월보다 15원 하락한 1,196.2원으로 마감

9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96.8.7원

9월말 달러/원 환율 : 1,196.2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10월 전망 대외적 미중 고위급 회담 불확실성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대내적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 지속 등이 소폭 환율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2019. 1Q	2019. 2Q	2019. 3Q ^F	2019. 4Q ^F
달러/원 환율(원)	1,125.7	1,167	1,194	1,210

- 미·중 10월 고위급 회담 전까지 기대에 의한 달러 약세가 예상되나, 경험상 10월 빅딜 가능성 크지않은 가운데 시장에 노이즈를 여전히 키울 요인

 - 10월 초반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가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협상이 빅딜로 성사될 경우 환율은 빠르게 하락 추세 전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스몰딜, 또는 경우에 따라 결렬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 이 경우 연고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연준이 향후 성장전망 상단을 하향 수정하였다는 점과 미·중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이 연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이 달러 약세로의 견인을 쉽지않게 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연속적 금리인하가 보험 성격이라는 측면이 매파적 요인인 가운데, 향후 성장전망 상단 하향조정도 경제둔화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요인
 - 여기에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가 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연준의 스탠스도 모호성을 띠 수 있는 점이 달러 약세 제한 요인으로 보임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국내 수출 부진 지속과 디플레 우려가 확대되는 국면이 원화 강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적으로 유럽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중국의 경기부양 여력 제한 속에 위안화 약세 정책 지속 가능성 등으로 원화 약세 동조화가 다소 이어질 전망
 - 여기에 10개월 연속 수출 부진과 전월 물가 지표가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 우려가 강화되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견히지 않는 점이 원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을 보임

미·중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담 결과가 상당 부분 시장에 노이즈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10월 연준 통화정책은 전월에 이어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미중 협상결과에 따라 스탠스 전환 가능성이 열린 상황

10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90원 ~1,210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對중국 투자 제한 등 고위급 회담에 장애물 산적 • 국내경제의 디플레 우려 부각 • 10월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원대 이상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에 따른 외환당국 경계감 지속 •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전환 가능성

엔/원 환율

9월 동향 홍콩 사태 완화 및 노딜브렉시트 우려 약화, 미·중 무역협상 기대 등으로 엔화 약세 시현했으나 미중 협상 난항, 다소 실망스러웠던 연준과 BOJ의 통화완화정책,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등이 강제전환 견인

엔/원 환율 전월대비 31.7원 하락한 1,109.3원에 마감

- 홍콩시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엔/원 환율 하락했으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미/일 통화정책회의, 미·중 협상 난항 등으로 낙폭 축소
 - 월 초, 홍콩 행정장관의 범죄인 인도 조약 개정안 철회 표명과 노딜브렉시트 방지 법안 통과,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
 - 월 중반, 미중 무역갈등 완화, ECB 통화완화 발표 등으로 엔/원 환율 1,090원 대로 하락했으나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및 BOJ금정위 영향으로 반등
 - 월 후반, 미중 실무급 협상 난항,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등이 엔/원 환율의 환율 제한적 상승 견인

10월 전망 달러/엔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일본 소비세 인상 여파 등으로 하락우위 전망. 엔/원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제한적 상승 예상

달러/엔 하락우위 전망

-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지속에 따른 엔화 강제압력 유효할 전망
 - 월 초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둔 기대감이 상존하나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지표 부진 속 경기둔화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충격 우려도 달러/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BOJ 통화완화 정책 발표 전망은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엔/원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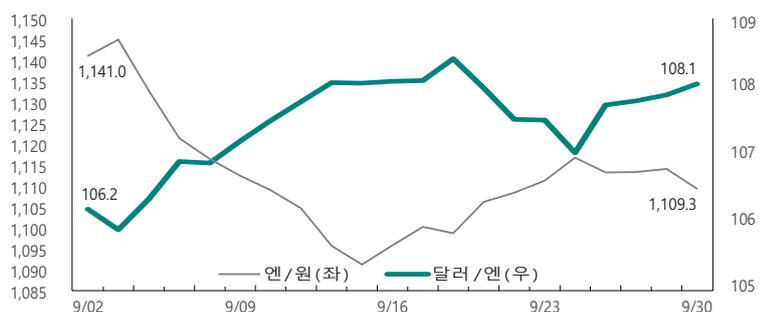
-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엔/원 환율 상승 견인할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BOK 금통위 금리인하 전망, 과거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엔화 강제 경험 등이 엔/원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BOJ 금정위에서의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발표 가능성이 엔/원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7.5엔

9월 엔/원 평균환율 : 1,112.2원

10월 엔/원 예상 범위 : 1,100~1,15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9월 동향

유로/달러는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및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한 후 ECB 공격적 추가 부양 가능성에 하락전환. 유로/원은 원화 강세 및 ECB 통화완화 영향으로 하락한 후 불확실성 지속에 상승전환

- 유로/원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따른 원화 강세 및 ECB 통화완화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월 후반 대외불확실성 속 원화 약세가 상승 견인
 - 월 초, 영국 하원의 노딜브렉시트 연기 법안 가결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완화되며 유로화 강세 시현하였으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따른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유로/원 환율 하락
 - 월 중반, ECB의 통화완화 패키지 발표가 유로/원 하락 견인. 9월 회의 이후 유로존 경기부양 기대감이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영향이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전환
 - 월 후반, 미중 무역협상 난항 속 원화 약세가 유로/원 추가 상승 견인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20.3원 하락한 1,309.9원에 마감

10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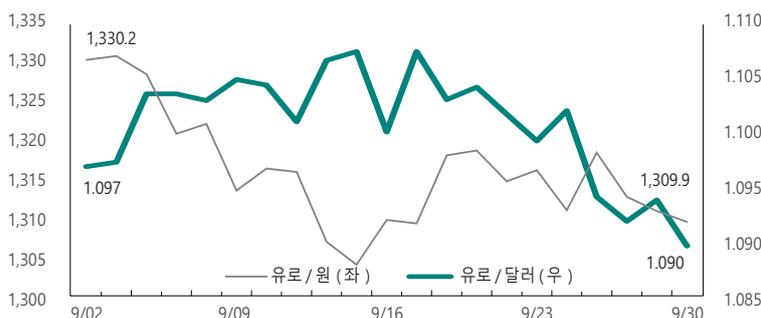
유로/달러 환율은 양국의 약세요인 혼재에 따른 보합 예상. 유로/원은 원화 약세 지속 전망에 상승 우위 전망

- 미국 및 유로존 양국의 경기 부진 우려로 유로/달러 환율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유로존 경기 부진 지속과 그에 따른 ECB의 추가적 통화완화정책 가능성 등이 유로/달러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미국 정정 불안 등 달러 약세요인은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은 안전자산 선호 지속에 따른 원화 약세 전망에 소폭 상승 전망
 - 국내 경기 부진과 그에 따른 BOK 금통위 금리인하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에 유로/원 환율 상승 전망
 - 유로존 경기 부진 또한 유로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낮은 수준의 유로/달러 환율 유지 전망

유로/원 환율 소폭 상승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00달러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16.3원

10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00원~1,33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7월	8월	9월
전 산업 생산	1.4	-0.6 [-0.8]	0.4 [0.5]	0.7 [1.5]	0.2 [0.5]	
제조업	1.2	-2.1 [-3.0]	-0.8 [1.6]	1.0 [2.8]	-3.0 [-1.5]	
서비스업 생산	2.1	1.1 [0.3]	1.4 [0.0]	1.4 [1.1]	2.4 [1.2]	
소매판매액	4.3	1.7	2.0	-0.3	4.1	
설비투자	-3.5	-19.6	-8.7	-4.9	-2.7	
건건설기성액	-5.3	-9.5	-6.4	-7.0	-6.9	
경기선행지수	-	-	-	98.4		
실업률 (%)		3.4	3.4	3.9	3.0	
소비자물가 상승률		-	-	0.6 [-0.3]	0.0 [0.2]	-0.4 [0.4]
경상수지 (억달러)	-	-	-	69,494		
상품수지 (억달러)	-	-	-	61,865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11.0	-13.6	-11.7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2.7	-4.2	-5.6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1,379	1,162	1,285
KOSPI (월말)	-			2,024.6	1,967.8	2,063.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9.4	2019.5	2019.6	2019.7	2019.8	2019.9
미국 USD	1,168.1	1,190.9	1,154.7	1,183.1	1,211.3	1,196.3
일본 JPY(100)	1,046.1	1,099.5	1,071.9	1,090.3	1,138.8	1,109.3
유로 EUR	1,304.2	1,325.5	1,312.9	1,318.6	1,336.7	1,309.9
영국 GBP	1,517.1	1,501.9	1,467.8	1,444.7	1,471.5	1,473.9
중국 CNH	173.1	171.6	168.2	171.6	168.9	167.5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종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종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10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豪 RBA 한 9월 CPI(0.2% MoM/0.0% YoY) 9월 무역수지(\$1,723m) -수출/수입(-13.6%/-4.2%, YoY) 일 9월 닛케이 PMI 제조업(48.9) 호 RBA 기준금리(1.00%) 유 9월 Markit 제조업PMI(F)(45.6) 독 9월 Markit 제조업PMI(F)(41.4) 미 9월 Markit 제조업PMI(51) 9월 ISM 제조업지수(49.1) 8월 건설지출(0.1% MoM)	2 New York Fed's Williams Speaks in San Diego Fed's Barkin Speaks at a Conference on the Rural Economy Fed's Harker Speaks at Community Banking Conference	3 일 9월 닛케이 PMI 종합/서비스(51.5/52.8) 유 9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2/50.4) 8월 유로존 PPI(0.2% MoM, 0.2% YoY) 8월 소매판매(-0.6% MoM, 2.2% YoY) 독 9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2.5/49.1) 미 9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50.9/51) 8월 제조업수주(1.4%) 8월 내구재 주문	4 한 9월 외환보유고(\$401,48b) 미 8월 무역수지(-\$54.0b) 9월 실업률(3.7%) Fed's Rosengren Speaks at Boston Fed Conference Powell Makes Opening Remarks at Fed Listens Event	5
6	7	8 미 9월 PPI(0.1% MoM/1.8% YoY) Powell Speaks at NABE Conference in Denver Fed's Evans Speaks in Chicago Kashkari Discusses Fed's Work on Native American Reservations	9 미 8월 도매재고(MoM) 9월 FOMC 회의록 공개	10 ECB 통화정책회의 일 9월 PPI(-0.9% YoY/-0.3% MoM) 8월 핵심가계수주(-6.6% MoM) 미 9월 CPI(0.1% MoM/1.7% YoY)	11 일 9월 공작기계 수주[P] 독 9월 CPI[F] 미 9월 수출/수입(-0.6%/-0.5%, MoM) Fed's Kashkari Speaks in Moderated Q&A on Economy in New York	12
13	14	15 일 8월 광공업생산 8월 3차산업지수(0.1% MoM) 8월 설비가동률(1.1% MoM) 중 9월 CPI/PPPI(2.8%/-0.8%, YoY)	16 한 9월 수출물가지수(1.5% MoM/-3.9% YoY) 수입물가지수(0.9% MoM, 0% YoY) 9월 실업률(3.10%) 유 8월 무역수지(24.8b) 9월 CPI(0.1% MoM/1.0% YoY) 미 8월 기업재고(0.40%)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Fed's Evans Discusses Economy and Monetary Policy	17 韓 금등위 한 BOK 기준금리(1.50%) 유 8월 건설생산(-0.7% MoM, 1% YoY) 미 9월 주택착공건수(12.3% MoM) 9월 건축허가(7.7% MoM) 9월 광공업생산(0.6%, MoM) 9월 설비가동률(77.9%) 10월 필리핀피아 연준 경기 전망(2) Fed's Evans Takes Part in a Fed Listens Event in Chicago EU 정상회의(~18)	18 일 9월 CPI(0.3%, YoY) 중 9월 광공업생산(4.4% YoY) 9월 소매판매(7.5% YoY)	19
20	21	22 한 9월 PPI (-0.6% YoY) 미 10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9) 9월 기준 주택매매(1.3% MoM)	23 유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	24 ECB 통화정책회의 한 3Q GDP[P] (1.0% QOQ) 일 10월 닛케이 PMI제조업[P] 유 ECB 기준금리(0.00%) 유 10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독 10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10월 Markit 종합, 제조업, 서비스PMI 9월 신규주택매매(7.1%, MoM)	25 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96.9) 독 10월 IFO 기업환경지수(94.6)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26
27	28	29 美 FOMC(~30) 미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125.1)	30 BOJ 통화정책회의(~31) 유 10월 경기기대지수 미 FED 기준금리(1.75~2.00%) 3Q GDP 연간화(QoQ) 3Q 개인소비 3Q GDP 물가지수	31 일 BOJ 기준금리(-0.10%) BOJ Outlook Report 중 10월 종합제조업, 비제조업 PM 영국 브렉시트 ASEAN +3 정상회담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